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선정 심의평

<2025년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선정 심의는 추천위원 추천 및 공모에 의거한 19명의 후보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창작성과(30), 지역에서의 활동(30), 향후 지속 가능성(4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1차 6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으며, 이 중에서도 고득표 3명 작가로 압축하여 심의위원들 간 개별적인 의견 개진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창작활동, 국내외 미술계에서의 역량과 함께 인천 지역과의 연고성을 검토하였다. 이번 전시제도의 정체성이 인천이라는 지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작가 평가의 기본 요건인 창의성, 지속가능성 이외에 인천미술의 기여도에도 주목한 것이다. 실질적인 지역 미술계에서의 활동 경력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종 후보였던 세 작가 모두 작가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 선정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차기울 작가를 최종 선정하는 것에 심의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융화, 조화 같은 거시적인 주제를 고고학적 발굴 형식으로 구현해 내고,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해 온 차기울 작가는 충실한 작품 세계뿐 아니라 인천을 기반으로 다양한 세대의 예술가들과 협력해 온 활동을 보여주었기에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공간 기반의 다양한 설치와 미디어 고고학, 인천 갯벌 지역 등 심도 깊은 풍토성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업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에게 귀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인천 지역이 세계의 동시대 미술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한편, 차기울 작가는 작가로서의 역량이 충분한 데 비해 국내외 미술계에서의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선정을 통해 차기울 작가의 작업세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그의 작가

적 역량과 창작활동이 재평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작가가 국내외에서 거둔 탁월한 창작성과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인천 지역미술사, 미술현장,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시대 미술 지원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2025. 6. 2.

<심의위원> *가나다순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前)부산시립미술관장

김복기, 아트인컬처 대표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안규철, 작가, 前)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현시원, 연세대학교 교수,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예술감독